

신앙의 예배
천국일본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니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장경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자원봉사를 통해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2)

달라진 충현동산, 정돈된 교회주변 뒤에 있었던 자원봉사자들

최근에 충현 동산을 방문하신 분들은 많이 놀랄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완전히 새로 위건 동산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이 모든 일이 성도들의 순수한 자원봉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에 갈비란 향유옥합을 부었던 마리아의 섬김(요 12:3)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섬김은 오직 십자가 대속의 길을 걸으실 예수님을 향한 자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니다. 이런 믿음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비단뿐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마 26:13). 또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루디아(행 16:14,15)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말씀의 처소로 내어놓을 때, 루디아에게 이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자원하는 섬김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과 십자가의 길을 예비했던 자원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구원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 구원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충현 동산을 천국만을 소망하는 곳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리아 같은 권사님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루디아 같은 가정교회장로님 가정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진 천군을 통해서 충현동산에 풍성한 열매를 기뻐할 수 있는 유실수 7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유실수를 심는 일과 주변정리를 하는 일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100여 명의 안수집사님들의 자원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순수한 자원봉사의 섬김이 일회적인 것이 아님을 안수집사님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안수집사님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충현 동산을 정리하는 일에 자원봉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재 충현 동산은 외곽의 울타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산책로를 개발하여, 충현동산을 방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와 쉬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은 달간(약 3개 일)은 주일 충현동산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엡 4:12)위한 자원봉사의 손길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현동산의 주



자리에 있는 주자선과 충현교회 내에 있는 주자선의 주자선을 갖는 일에 장철규 집사님의 순수한 믿음을 통한 자원 봉사가 있었습니니다. 또한 교회 주변의 오래된 느티나무와 향나무를 뽑고, 심는 일에도 많은 분들의 자원봉사가 있었습니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움 뜻으로 하라"(벧전 5:2). 간혹 어떤 분들은 '어떤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주었던 자원봉사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자기를 부린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빛진 자(로 8:12)의 신앙이 있었습니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드려도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오직 배부른 은총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고, 단지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원봉사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교구 간사에게 문의하거나, 직접 사무국이나 자원봉사부실(교육관 6층)로 오셔서 문의하실길 바랍니다.

*오늘(24일) 한양대세 때 2005년 제2차 세례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오후 3시 30분(월요일))

*2005년 제4차 성전헌식이 다음 주(5월 1일) 1부에서 5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2005년 제6차 CMTC 훈련이 다음주(5월 1일)에 있습니다.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2)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성경의 중심이 되듯이 구약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다는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분명히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고집된 시야는 구약성경 따로, 신약성경 따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니다. 신구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서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전혀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야로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3일만에 부활한 몸은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족을 입히시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으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로 분명히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언약을 통하여 온 인류가 복 받을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구세주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롬 4:3).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는데, 그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요 8:56).

모세도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모세가 받는 고난의 이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모세의 정신세계에 깊숙이 자리 잡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았던 사실을 모세오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유월절 제사를 지내며 써 내려 가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양으로 묘사할 때에 그의 마음은 얼마나 설렘이었을까요? 유월절에 어린양의 피를 문질러야 발아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유월절 어린양을 잡을 때에 뼈를 찢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는 왜 뼈를 찢지 말라고 하였을까 무척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뼈를 찢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것을 세례요한이 증거하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두 강도의 뼈는 찢었습니니다. 예수님의 뼈는 찢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요 19:36).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세오경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피를 십자가의 손길로 나에게 맞추게 다하고도 새로운 지각의 문을 여는 주님의 세밀함에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완벽한 주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구원하시니 수천 번 전부터 준비하여 왔는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는 손길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듯이, 모세오경의 주인공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며 오실 왕이십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적인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류병희 목사)

LORD'S SUPPER

“(22) And while they were eating, He took [some] bread, and after a blessing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and said, “Take [it]; this is My body.”

(23) And when He had taken a cup, [an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and they all drank from it. (24) And He said to them,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Mark 14:22-24)

The beginning of Mark 14 mentions the approaching feasts of Passover and Unleavened Bread, two of Israel's great yearly celebrations commemorating their deliverance from Egypt on the night when God “passed over” the homes of the Israelites during the slaughter of the firstborn. These godly events climaxed with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Many things occurred during the two days leading up to these feasts, which were part of Jesus' last supper. I would like to highlight three of the situations that Mark records in chapter 14 that will help us prepare our hearts as we come together today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Mark 14:3-9 explains that Mary poured expensive oil over Jesus' head during His visit with Simon, the leper. Her royal actions, which occurred the day before Jesus' institution of the Lord's Supper, were the climax of this dinner party. Judas Iscariot, one of the twelve disciples, instigated trouble by questioning her deed, and causing the others at the dinner party to ask, “Why has this perfume been wasted?” His true spirit was valid from human eyes, but not from God's perspective. Jesus defended Mary, and told His disciples, “Truly I say to you, wherever the gospel is preached in the whole world, what this woman has done will also be spoken of in memory of her”(v. 9). Mary's use of the costly oil had wonderful merit. It was a gift fit for a king, and therefore quite appropriate. Her lovely and sincere heart revealed her beautiful dedication to Jesus. I hope you will come today to the Lord's Supper with that kind of generous devotion.

While Jesus was sharing a meal with Simon and His disciples,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were secretly seeking how to kill Him, saying, “Not during the festival, otherwise there might be a riot of the people”(v. 2). Judas Iscariot went to these religious officials after Simon's dinner party in order to betray Him to them, and they were exceedingly happy with his idea, and even promised to give him money(v. 10). He began thinking how he would betray Jesus at the right time(v. 11). With these wicked thoughts in his head, he sat down the next evening with Jesus and partook of the Lord's Supper. On the outside, he appeared wholesome and worthy, but on the inside, he was rotten and not fit to sit at the Lord's Table. It is true that any one of us can commit sin, but secretly living an ungodly life and

coming to the Lord's Table without repentance is not only shamefully wrong, but is extremely dangerous and can be deadly. For this reason, you need to examine yourself carefully prior to partaking of the Lord's Supper. Please heed this warning—woe to any person who betrays the Lord Jesus Christ!

Two separate dinners occurred on the evening of Jesus' last supper. The first concerned Passover and Unleavened Bread, and the second the Lord's Supper. The first supper required special preparations, in which the Israelites were required to sacrifice an unblemished lamb, cleanse their homes of leaven, and eat unleavened bread and bitter herbs in remembrance of God's mercy for passing over their ancestors(v. 15). In the second supper, Jesus took some bread, and after a blessing He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and said, “Take it; this is My body”(v. 22). And when He had taken a cup and given thanks, He gave it to His disciples, and they all drank from it. And He said to them,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v. 24). Just as the Israelites prepared themselves to partake of Passover and Unleavened Bread, so believers need to prepare themselves for the Lord's Supper. Christ became our Passover Lamb. 1 Corinthians 5:7 says, “Clean out the old leaven so that you may be a new lump, just as you are in fact unleavened. For Christ our Passover also has been sacrificed.” Please prepare yourself by cleansing your sin before coming to the Lord's Supper, for Jesus died in order to destroy the sin problem of all humans.

As Jesus and His disciples ate the Passover on the first day of Unleavened Bread, He explained to everyone a new covenant, in which He would be the sacrificial lamb. The unleavened bread now represented His body and the wine His blood. God was making a new covenant, so Jesus instituted a new celebration commemorating His death, resurrection, and second coming. His blood would save all believers from death, so that God would “pass over” them during judgement. The Lord's Supper, in light of Jesus' resurrection and ascension, enables us to look back on Jesus' life, look forward to His coming again, and look upward to His Lordship. Come now, with a sincere, reverent, and clean heart to the Lord's Table, and receive His blessing. Amen. 

주의 만찬

22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막 14:22-24)



김성관 목사

마가복음 14장은 유월절과 무교절 즈음에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소생을 죽이시던 밤에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시고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기념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최절정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를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 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유다는 주의 만찬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면서, 그 사실을 숨긴 채 회개도 하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죄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말로 영혼을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흘려듣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는 누구든지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마가복음 14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녀가 행한 이 고귀한 일은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기 하루 전에 일어난 것으로 그 날 저녁 식사 때 벌어진 일들 중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 열 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그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슬며시 문제를 부추겼습니다. 저녁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도 그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노?”(막 14:4) 가롯 유다의 이러한 비판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극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막 14:9).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향유는 왕께 바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린 일은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진실한 헌신의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예수께서 행하신 마지막 만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하는 만찬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만찬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찬의 경우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날 흠 없는 어린양을 제물로 드리고, 짐을 정결히 하며,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소망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습니다(막 14:15). 두 번째 만찬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이었습니다. 이 날 저녁,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막 14:22).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신 뒤 제자들에게 모두 마시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막 14:24).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살피고 준비했던 것처럼, 신자들 또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스스로를 살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앞서 자신의 죄를 정결히 함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마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은밀하게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말했습니다. “민요가 날가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막 14:2). 가롯 유다는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찾아왔습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그들은 뭇듯이 기뻐하며 유다에게 사례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막 14:10). 이 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길 적당할 기회를 잡기 위해 생각을 짜내기 시작합니다(막 14:11). 다음날 저녁, 머리 숙으려는 이런 사악한 계획을 세우면서 유다는 천연스럽게 예수님과 그의 만찬 자리에 앉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다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존경할 만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

무교절 첫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두에게 새 언약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희생양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교절의 떡은 이제 그의 몸을 의미했고, 포도주는 그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의 피는 모든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구해주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되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의 만찬으로 나아오십시오.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경외심으로 떨며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아멘.

장로 칼럼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1교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2)



이계인 (1교구장)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어서 주님의 몸이 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본래 모습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구사역임을 믿습니다. 위치적으로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교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무리를 돌아보고 먹이고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구로서 온전한 서길 위해서 모두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교회의 첫째 사명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임을 믿고 신령한 예배와 천국일꾼 양성을 통한 국내·외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1교구는 교구장을 중심으로 9지역 32개 구역으로 역삼 1동과 2동 일부에 위치한 교구입니다. 4월 현재 505가정 1114명의 성도와 교역자 가정이 함께 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1교구 전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공 예배 및 각종 모임에 가장 앞장서서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본래의 목적입니다(사 43:2).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요 4:21-26).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른 믿을 위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바로 이 예배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모든 성도, 교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서

로 격려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잘 감당하는 교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 이루는 일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5년에도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단기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또한 1교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회주변전도에 앞장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다른 교구들과 함께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딤후 1:3).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에 힘쓰는 교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웃 사랑(막 12:33)의 사명을 감당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하지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1교구는 물론 천천히 회가 충실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1교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명의 자리에서 1교구 모든 성도들은 그 맑은 바 사명의 자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대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3)라는 주님의 칭찬받은 은총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1교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직원3월의 선교후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가 뜨겁게 선교를 하는 동안 사단의 역사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단은 우리 팀원들 사이에 파고 들었다. 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찬양을 했는데 쉬는 사이의 대화 중 교묘하게 끼어드는 사단의 방해를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자리가 나오게 되고 남의 허물을 말하게 되고 자존심이 살아나고 자아가 살아나는 것이다. "허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취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도니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데도 내 형제들이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나라! (약 3:8-10).

최심기 (행정과)

한집 한집 방문하면서 일대일 전도를 하며 그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고 함께 부르며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한집에서 영접기도까지 마치고 찬송을 가르쳐주고 난 후에 열집으로 이동했을 때, 방금 나온 집에서 들려오는 찬양소리, 어린 아이가 큰 소리로 전도지를 읽을 때면 눈이 잘 안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서 손자가 들려주는 복음을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듣고 계시던 모습, 찬송을 함께 부르자고 외치면 쑥스러워하면서도 조용히, 때로는 큰 소리로 찬송을 따라 부르는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셨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은 절대로 잊지 못할 은혜의 경험입니다.

김덕수 (음역과)

찌는 듯한 더위와 마을마다 우뚝 선 탑들을 바라보며 어디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앞장서서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들어가고도 되니 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 믿음으로 가자." 하고 따라 갔습니다. 집에는 백 가운데 불상이 모셔져 있었지만 60대와 40대인 두 분께 각각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집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찬송들을 부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정말 우리는 우리 앞서 역사하시며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에 막막해하며 두려웠던 저의 어려움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팀원들이 마을을 떠날 때 그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까지 나와 손을 흔들며 환송해 주셨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마을이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할 것 같아 기뻐하며 떠났습니다.

김형진 (관리과)

사역지에서 아침마다 드리는 경건회를 통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사역할 마음을 향해 떠났다. 같은 복음을 매일 증거하지만 어제와 오늘 또 내일의 사역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행하심이 다른 것을 보았다. 어느 날 마을의 한 가정에 들어가 어른 되시는 분께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어디선가 한 사람 한 사람 계단을 올라와 그 집으로 모여드는 것이 아닌가.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쁨이 넘치고 어디선가 썬튼는 힘이 내 안에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혜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를 의지할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았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내 말이 요동함 없이 그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감사할 뿐이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나를 비우고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행하시는 성령님은 참 놀랍고 멋진 분이시다. 복음을 증거한 후에 속소로 돌아오는 길엔 오로지 기쁨과 감사만이 넘칠 뿐이었다. 사도행전처럼 역사하셨던 성령님, 동행하길 나와 함께 우리 팀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셨음을 분명하다.

이숙향 (행정과)

더욱 큰 은혜

주님께서는 3학년이 되자마자 나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다. 그것은 선교였다. 신년예배를 드리면서 올 해 주님의 신실한 그릇이 되기로 마음 먹었던 나였지만 고3이 된 상황에서 선교는 정말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난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말씀을 통해 내가 선교를 가야하는 당위성을 알려주셨고, 연초에 했던 나의 다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셨다. 그리하여 나는 고3 겨울방학의 한 주를 선교사역에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선교지로 떠났다.

5박6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가는 것이라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다.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가는 건데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성령님은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더욱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가는 것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을 예비해 주셔서 모든 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슬기 (고등부)

예수! 나의 기쁨

저는 여러번의 선교 경험을 밟고 화려한 설명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적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알아들릴 못했습니다. 저는 교만한 저를 막으시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뜻으로 나의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곳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야네"으로 회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선교를 통해서 저는 '예수'라는 두글자만 전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것뿐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씨를 뿌리고 앓을 뿐입니다. 그 씨에서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나라를 변화시켜줄 것을 믿고 끝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준 (대학부)

한 영혼을 위한 증인들의 고백

은총을 입은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금요일집회 때에 고백했던 선교 보고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 * 현지에서 세워져 있는 우상들을 봤을 때, 연약한 저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농동자를 보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야네! 야네!"하며 응답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어!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 * 죄인 중의 괴수 죄인을 주님의 도구로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 목질을 요구하는 현지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 *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저들을 천국문 앞에서 다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 *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도우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 * 현지인들이 "저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며 한번의 거부도 없이 고백하는 것을 봤을 때, 회개하는 그리스도 백성들을 떠올렸습니다.
- * '사탄 앞에서는 안될 거야, 시장에서서는 안될 거야'라는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하나님께서 모두 벗기셨습니다.
- *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주어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 *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는 현지인들을 보며, 이들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임을 깨달았습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

단기선교를 통해서 깊이 느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힘 있고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다. 상황을 바꿀 생각해 보면 솔직히 낯선 사람 하나가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생소한 말씀을 한다면 나는 씩사리 믿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선교를 간 지역의 영혼들 중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겠다고 영접기도를 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답은 주님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전하는 나로서는 절로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순간들이었다. "정말로 준비된 영혼들을 예비해 두셨구나"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던 한 경관이 기억에 남는다. 수상한 눈조리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속으로는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되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다가가 예수님을 소개한 후 믿으라고 권했다. 나의 걱정은 기우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호기심 많은 그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겠다고 하고, 나는 더 강권하여 주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지를 주며 말했다. 영접기도와 마무리 기도를 하며 이 영혼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아무런 제재 없이 전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린다.

이택형 (청년1부)

주님의 능력

이번 사역 가운데 특별한 기억 남은 시간이 있었다. 고산 지대라 안개가 많은 지역에 갔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몹시 짙어서 운전하기 무척 어려웠다. 어느 정도로 짙은 안개인가하면, 내려서 잠시 쉴 때 바로 앞에 선 사람의 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구분이 안 되어 누구인지 물어봐야 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1미터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좁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갔다.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어 이를 물리치기 위해 팀원들이 같이 찬송을 불렀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여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기 위해 차에 올랐는데 차가 너무 낡아 앞바퀴에 펄크가 나서 차가 주저앉았다. 돌아가는 길은 포장도 되지 않은 좁고 위험한 산길이었고 급커브의 연속이었다. 또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야 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 예비타이어가 있어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타이어 때문에 많은 시간을 지체해서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두려웠지만 무사히 산길을 다 내려와 평지를 달리게 되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 타이어가 터진 것이다. 온 몸이 진전기가 날 정도로 끔찍했다. 5분만 타이어가 일찍 터졌어도 우리는 모두 천국행이었을 것이다. 안개가 심한 구불구불하고 좁은 내리막길에서 타이어가 터졌다면... 라고 생각하니 그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다.

원곡 앞바퀴가 주저앉아 휠의 힘으로 바퀴를 굴러 간신히 호탈에 도착했다. 참 많은 생각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지나갔다. 그때 세심하게 다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렸다. 만약 주님이 타이어에 구멍이 나지 않게 하셨다면 주님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끔찍한 일이었지만 주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왔다. 마치 끔찍한 십자가이지만 주님이 그 곳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그 일로 인해 평생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김누리 (대학부)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4월 25(일) - 5월 4(일)	7교구 2지역	최해년	4월 25(일) - 5월 4(일)	교구외 2사팀	이흥우
4월 25(일) - 5월 4(일)	7교구 3지역	신용환	4월 28(일) - 5월 7(일)	청년2부 2	허형철
4월 25(일) - 5월 4(일)	15교구 6지역	신종식	4월 29(일) - 5월 7(일)	2교구 3지역	박형서
4월 25(일) - 5월 4(일)	15교구 3지역	김태식	4월 29(일) - 5월 7(일)	9교구 2지역	조종광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4월 11(일) - 4월 20(일)	13교구 6지역	강진혁	4월 18(일) - 4월 27(일)	15교구 4지역	박종태
4월 12(일) - 4월 21(일)	3교구 2지역	김희선	4월 19(일) - 4월 28(일)	13교구 4지역	임재봉
			4월 19(일) - 4월 30(일)	1교구 7지역	이부성
			4월 21(일) - 4월 29(일)	12교구 4지역	정원근

엄마와 딸의 이중주

"이진이는 하나님의 것"

엄마: 이진이는 누구 것이지?

이진: 하나님 것. 엄마도 하나님 것, 아빠도 하나님 것, 무원씨도 하나님 것.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하나님 것. 하나님이 아빠도 만드시고, 엄마도 만드시고, 무원씨도 만드시고, 전부 다 만드셨잖아.

엄마: 맞아. 그럼 이진이는 예수님 믿어요?

이진: 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지.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잖아.

엄마: 지옥엔 누가 있지?

이진: 마귀가 있어.

엄마: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지?

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

엄마: 왜 그러셨지?

이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데,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 가셨어. 이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잖아.

엄마: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죄가 없으셔서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지.

이진: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엄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지?

이진: 응.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기도도 하고.

엄마: 약! 그래. 엄마도 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할게.

이진이는 유아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섯 살 아이예요. 아직도 "나는 공주야. 공주" 라면서 내복 위에도 치마를 입고 노는 데생이, 철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이 안에 믿음의 씨를 심으시고 키우시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엄혜원 (집사, 8교구)

"우리는 믿는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바울에 대한 지난 설교를 듣고 어느 샌가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울과 같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 짧은 글 하나가 떠올랐다.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와 있었다. 이 교회의 벽에는 선명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언제부턴가 건물 벽에 담장이 그려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벽에 쓰인 글을 가리기 시작했다. 벽에 쓰인 글 중에서 "십자가에 못박힌"이란 부분을 담장이 넣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만 보였다. 얼마 후 담장이 넣을 이 더 지나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가리게 되었다. 결국 남은 말은 "우리는 믿는다"는 말뿐이었다. 끝내는 이 담장이 넣었어 벽을 모두 가려 원래 있던 글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증거하는 자들인가?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다. 기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보라.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배보라.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과 죽음의 의미 배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아예 우리의 존재가치마저 없어질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써 값없는 의뢰다함을 얻었다.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하소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케 하소서."

황태원 (청년1부)

나는 주님의 자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나는 이론상으로나 족보상으로 공주가 맞다. 그런데 공주도 가끔은 타일을 구걸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탔는데 교통카드도 다 떨어지고 주머니에 돈도 없을 때다. 더 비극은 그 버스에서 쫓겨났을 때다. 아침이었는데 처음에 버스에서 내리고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하면서 걸으며 꿈이 생각났다.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귀한 딸이 버스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하시나? 불평하고 원망하던 순간. 나의 신분이 생각났다. 내가 정말 공주라면 이까지 버스비 하나로 스타일을 구겨선 안 되겠다 싶었다. 예수님은 나를 께 값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값이치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겨우 버스비 900원만도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삼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것. 그리고 나의 신분이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상황과 형편이 만측스럽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야 할 상황이 생겨도 내가 주님의 귀한 딸임을 잊지 않고 스타일을 구기지 않는 것. 내 기쁨을 상하며 망치지 않는 것,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 나라의 공주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없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걸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걷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능력은 온전히 신뢰하는 것. 내 아버지의 파워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공주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왕자와 공주들이 우리들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백전 29).



이선민 (대학부)

그들보다, 그들만큼

교사실에서 아침기도회를 할 때, 예배실에서는 찬양대의 연습 소리가 들립니다. 사관부 찬양대원들은 비록 음정, 박자가 어눌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 신생님의 지휘에 맞추어 주님께 드릴 찬양을 연습합니다. 이어지는 예배시간에는 몸은 불완전해도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고 예쁘게 이들을 바로 사랑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예배 후 친교와 제조를 한 후 식당에서 국수를 먹고 다시 예배실로 돌아와 분반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림으로써 사랑부 예배는 끝이 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늦잠을 자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달려 나온 사랑부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들이 보기에 비록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이는 모습에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보다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귀한 것을 깨닫고 나아오는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게을렀던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가족들과 여행 다녀온 이야기, 병원 갔던 일, 복지관에서 친구와 다른 이야기 등등 저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는 모습에서 그들의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을 대합니다. 비록 육체의 장애가 있을지라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신 어린 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을 느낍니다. 분반공부 시간, 졸린 눈을 비비며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모습에서 저는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저들이 주님께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게으름 때문에 주님의 도구로서 행할 바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부 교사 활동을 통해 저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합당한 능력을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려는 마음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저를 사랑부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들보다 풍족한 나인데 그들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찬양도 드리지 않고 감사를 드리지 않는 저의 악한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부를 통해 저에게 인간이 가진 약함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저를 사랑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김은경 (사랑부 교사)

교회 탐방 61 청년1부 팀장 & 조장들

선교와 전도의 삶

30세,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 오늘은 30조으로 놓인 청년1부 팀의 팀장과 조장들을 만나 이들의 전도와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직장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기를 하고 들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 올 것을 권합니다. (김경남 팀장)

제가 식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한 동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자 친구의 강요로 교회에 가면 동안 다니기 했지만 주기도 문도 못 외었다고 자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대치를 가지고 저를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주여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김성진 조장)

한 사람에게 꾸준히 전도하지는 못했지만 친구들과 연락하게 되면 교회에 오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저에게 전도 영트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친구에게 더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신미란 조장)

앞으로 선교 계획은?

입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가가 없었던 인사 개편으로 인해 상사가 크리스천으로 바뀌어 기도하며 연후와 유가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때마다 그때그때 순종하여 갑니다. (이준주 조장)

선교를 다녀오고 어땠는지?

2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를 가려다 직장을 그만두지 못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 개인적으로 A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니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영연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미란)

제가 주님 앞에서 상태가 좋지 않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수련회나 사역을 제게 주셨습니다. 처음 선교는 교회에서 가라고 해서 갔지만 막상 가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내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을 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선교를 통해 나의 개인적인 의도가 어땠는지 사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성민 조장)

교회에서 2년 다녀왔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선교는 노동이 아니라 살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유경 조장)

예전에는 단기선교를 하나의 교회 행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다녀오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목적이 아니라기 때문에 선교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를 불러들이고 복음을 전했을 때 기뻐했습니다. 다녀와서 계속 기도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잊어져서 아쉬웠지만 이후 그 나라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칩니다. (김경남)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상대가 제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불인과 근심 없이 이야기를 듣다보면 상대방부터 자기 속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최인한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최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 (김경남)

매주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좌절함과 나누며...

조원들과 십자가 복음에 대해 나누며 '자식 너희들 다 아는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믿어 알고 있는가 아니라, 이것이 너희 삶이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양성민)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만이 소망임을 전하게 되지만, 사람을 보거나 나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에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내려 놓으며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내 최적인 모습에서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준주)

아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마음과 뜻을 다해 모두 선교를 갖고 싶습니다. 어떤 계기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유경) 선교를 '왜?' '무엇?'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꼭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성민) 선교와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이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김경남)

제가 되나 사방에 꽃들이 만발하듯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꽃피우려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 긴 강아지 시절을 마치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피어난 청년부를 기대한다. (런전실)

다음 주일 찬송

284장 주 예수 해변서

이 곡은 메리 아테미시어 래스베리(Mary Atemisier) Lathbury, 1841~1913가 1877년에 작사한 찬송이며, 작곡은 윌리엄 피스커 서원(William Fiske Sherwin, 1826~1883)이 1877년에 찬송서로 작곡했다.

이 곡의 배경은 주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성경 말씀에 그 바탕이다. 작사자 레리는 수녀가 호수 연안에 서서 이를 밀고고 저리 밀리는 예수님 당시의 많은 무리들이 생명의 만찬을 사모해서 모였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찬을 사모하기 위해 호수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해변에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것처럼 부끄럽게 해라라는 강구로 시를 쓰게 된 것이다.

1절은 예수께서 배에서 본들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장면을 생각하면서 사자들을 찾아가 길잡이로 삼고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

2절은 양생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길잡이로 삼고 같은 우리에게 과거 갈릴리 해변에서 하신 말씀으로 그 주님을 만해 주신 것처럼 길잡이로 삼을 채워주시 것을 간청한다.

3절은 죄의 사함의 사슬에 얽매진 우리 생명의 길잡이로 삼고 같은 우리에게서 찾아오셔서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찬양한다.

4절은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아드님 영이 밝아져서 생명의 길에 대해 무지했던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자 깨달아 알도록 생명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찬양한다.

이제 2005년 두 번째 성찬식이 다음 주에 시행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젠 전 길잡이 해변의 많은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도 길잡이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는 성찬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위원회)

새 · 가 · 족 · 을 · 형 · 함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77	김희하	12	청년1부	주재현(12)	1202	김남주	7	청년2부	이광재(7)	1227	변희정	2	청년1부	고금선(2)
1178	안종현	19	청년1부	김원호(19)	1203	정지현	7	청년1부	김준하(7)	1228	정지현	7	청년1부	송기영(7)
1179	최희준	1	소년부	김익(1)	1204	강지훈	8	청년1부	김재현(8)	1229	정지현	4	청년2부	김명준(4)
1180	김종호	14	청년1부	김영민(14)	1205	이희진	12	청년2부	박현우(12)	1230	허지우	3	청년2부	
1181	신민우	7	청년1부	김영민(7)	1206	주상준	8	청년2부	박영준(8)	1231	홍성민	19	고등부	주진성(19)
1182	정희우	14	청년1부	유준하(14)	1207	김종현	8	청년2부	박준하(8)	1232	최승우	19	고등부	이준민(19)
1183	최기운	14	청년2부	이기영(14)	1208	송준하	3	청년2부	조종현(3)	1233	정지현	19	고등부	이준민(19)
1184	정조수	10	청년2부	한재현(10)	1209	유희진	19	청년1부	한준하(19)	1234	김명준	19	고등부	박준하(19)
1185	서지민	19	청년1부	민정희(19)	1210	이정현	19	청년1부	윤준하(19)	1235	서지민	19	고등부	이준민(19)
1186	임상수	4	청년1부	이순희(4)	1211	김미정	6	청년2부	정지현(6)	1236	송준하	19	고등부	박준하(19)
1187	최준하	19	청년1부		1212	최정현	19	청년2부	박준하(19)	1237	신승기	19	고등부	양준하(19)
1188	손재민	19	청년1부	유준하(19)	1213	박준하	7	청년2부	노준하(7)	1238	이규희	19	고등부	김민우(19)
1189	정준하	8	청년1부	송기영(8)	1214	권준하	12	청년2부	윤준하(12)	1240	주미도	19	고등부	
1190	최재민	19	청년1부	김영민(19)	1215	김태현	19	청년1부	전준하(19)	1241	최미도	19	고등부	
1191	정희우	11	청년1부	정지현(11)	1216	정지현	19	청년1부	정지현(19)	1242	정지현	19	고등부	
1192	송준하	19	청년1부	김영민(19)	1217	박준하	19	고등부	이준하(19)	1243	최	19	고등부	
1193	김준하	19	청년1부	정지현(19)	1218	정지현	19	청년1부	이준하(19)	1244	오기영	19	고등부	
1194	최재민	19	청년1부	이순희(19)	1219	노준하	19	청년1부	안준하(19)	1245	최미도	19	고등부	
1195	유준하	19	청년1부		1220	박준하	19	청년1부	신준하(19)	1246	김스스	19	고등부	
1196	정지현	19	청년1부	김영민(19)	1221	박준하	19	고등부	문준하(19)	1247	유기영	19	고등부	
1197	정지현	19	청년1부	안준하(19)	1222	박준하	19	청년1부	안준하(19)	1248	최미도	19	고등부	
1198	조희우	7	청년1부	이준하(7)	1223	이준하	19	고등부	정준하(19)	1249	나세로	19	고등부	
1199	이준하	19	청년1부	정지현(19)	1224	정준하	19	청년1부	김준하(19)	1250	리준하	19	고등부	
1200	정지현	7	청년2부	주정희(7)	1225	정지현	19	청년1부	노준하(19)					
1201	이준하	13	청년1부	이영민(13)	1226	윤준하	2	청년2부	고금선(2)					

* 순천교회와 한 가족이 피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생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회소식

모임

이종대 1929년	정현민 1929년	박기근 1929년	류병희 1929년	김영준 1929년
여국근 1929년	안창덕 1929년	나광영 1929년	정진호 1929년	김동우 1929년
고환희 1929년	위관람 1929년	김익환 1929년	장 훈 1929년	임대민 1929년
이희식 1929년	최종철 1929년	하종철 1929년	안치원 1929년	정승준 1929년
양재용 1929년	이성진 1929년	조규호 1929년	최성규 1929년	이영환 1929년
이경준 1929년	이창수 1929년	김준희 1929년	윤수민 1929년	황철진 1929년
정성일 1929년	이정훈 1929년	김태석 1929년	김성룡 1929년	

■ 여전도사

정영리 1929년	신동자 1929년	윤운식 1929년	한영준 1929년	김연석 1929년
홍순애 1929년	이옥주 1929년	김말자 1929년	안태순 1929년	김영민 1929년
조옥자 1929년	강덕필 1929년	최윤실 1929년	전은희 1929년	김영준 1929년
김길자 1929년	이수경 1929년	김경희 1929년	이복순 1929년	류진희 1929년
한성일 1929년	임대주 1929년			

■ 천안감목 감업근 ■ 전임지휘자 서운성

구 분	시 간	장 소
청년 2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층
청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청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청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말 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자길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교육관 207호
타 학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제3차육육상부	오후 12:15	메디나루
중형인라인킥	주말교육	교육관 107호
전신강인라인교류	주말교육	충북복지관
국립소년소녀국악	오전 11:00	아 메루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ix o'clock Service. Spanish,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